

역사 발전과 현대인의 고민*

李仁浩**

과거의 생각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역사 발전과 현대인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여 자연에 순응하거나 대항해서 살아온 자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핵심은 경제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즉 역사는 자체가 인간 생활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노동을 통해 자연 조건을 변화시켜 문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핵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30년 동안 역사를 보는 눈을 지배해 온 것은 소위 마르크스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학, 철학, 사회학 그리고 윤리학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형이상학적인 현상이 종합된 체계이지만, 변질된 유물론적인 사관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지 않

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발전주의적인 의식 구조, 즉 발전중심론 자체도 깊이 살펴보면 유물론적 바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경제 활동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며, 문화와 정치의 내용도 생산에서부터 결정된다는 의식구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옳으냐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볼때 지난 20~30년 동안 이룩해 놓은 경제 발전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 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사람다운 삶인지 하는 질문을 해 보면, 역사가 진보했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옛날보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생활이 좋아졌다는 것이 역사가 진보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에 대한 여러가지 불투명한 전망, 흉악 범죄의 창궐, 성수대교의 붕괴로 상징되는 여러가지 참화로

* 본 稿의 내용은 11월 월례 동향의 강의를 녹취한 것임.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미국 하바드대학교 역사학 박사.

볼 때에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도 괜찮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폴 케네디는 한국은 그래도 여러가지로 나은 처지에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전인류의 운명이 엉켜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 잘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서양 사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를 이룩한다든가 역사를 만든다든가 하는 의식이 없었던 태고적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의식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기록을 남긴 사람은 기원전 5세기 경의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이며 서양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개념들이 그때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스와 로마시대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 없이 순환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전은 있는 것이 아니고 되풀이 되는 것이며, 인간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가 있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신들이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운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해 나가는 데 주력을 했고 그러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상당히 다른 쪽으로 발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역사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인간의 영혼 구제에 관심을 두고, 역사는 구원을 향해 인간이 끝없이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는 신의 예정된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처가는 과정이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세의 고통은 오히려 구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고난당하는 모습이 인간이 흠모해야 될 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역사를 생각하는 개념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보던 발상이 대전환을 가져온 것은 르네상스 종교 개혁입니다. 14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인들의 활동 범위는 유럽대륙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동인도와 미 대륙을 발견하면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육로를 통한 세계 무역이 상당히 있었으나 일반인들의 의식 구조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서양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힘이 거의 무한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카톨릭 교회나 성직

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권위가 부정되고 이성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믿지 않게 되었고, 역사의 주체가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면 신의 권위에 의존해서나 알 수 있었던 사물의 이치를 터득할 수가 있다는 사고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정립한 사상가가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가능한 영역이 무엇이고 가능한 영역에서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전통에서는 인간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아예 부정을 해버리고 감각으로 포착될 수 있는 영역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역사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연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질서에 순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함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자연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100년 전은 물론이고 50~60년 전만 하

더라도 역사학자들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공업화 과정과 같은 획기적인 혁명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200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변화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었습니다. 동력源의 변화, 19C 후반의 화학공업 발전에 이어, 20C 전후에 전기·전자나 생물학의 급속한 혁신에 따라 이것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치 않은 말이며 단지 가속화되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을 뿐임을 역사학자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현이 달라졌는데 결국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실제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는 거의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증적인 사고 방식이 사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콩트는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단계에서 철학 또는 형이상학적인 단계를 거쳐서 과학적인 단계에 왔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실험 과학과 같이 규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 극치에 달한 표현이었고 그러한 의식 구조가 지금까지 역사를 지배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서양 중심의 역사입니다. 결국 인간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은 감각으로 느낄수 있고 인간의 이성

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서 계속되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19세기 말이 되면 선각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물질 생활에서 빈곤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전체 역사를 볼 때에 유럽같은 세계에서도 19세기에는 그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데올로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한가지가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입니다. 18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물질 세계의 문제에 관해서만은 운명론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가난도 숙명이며 적용하지 못하면 종교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식으로 흡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었는데 19세기로 들어오면서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가난의 문제는 인간의 탓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는 정치가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정치 투쟁이 역사에서 중요한 테마로 등장했습니다. 프랑스혁명은 정치 체제의 문제, 권력 구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상됨에 따라 절대 군주제나 카톨릭 교회를 퇴치해서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정치적인 해방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

기 들어오면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권리를 획득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보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이슈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연원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정치 구조에서 탈피해서 인간이 자기의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거대한 국가 구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상부상조하는 共産的인 체제를 만들면 그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같은 거대한 기구는 여전히 필요한데 다만 정치인들에게 국가 경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테크노크라트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거대한 국가 기구를 가동할 수 있게 되면 생산력이 증진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보다는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평등한 분배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건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그 당시까지 나왔던 대안보다는 훨씬 더 야욕적으로 역사철학과 경제 이론을 배합시키면 평등과 해방이 현실화되는 사회주의라는 사회가 온다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마르크스는 봉건 영주들이 신분적인 혜택을 누리며 나머지가 농노 생활을 하던 봉건주의 시대, 개인의 권리가 존중이 되고 자율경쟁이 원칙이 되어서 상당한 정도로 경제력이 생성되는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정치 민주주의 시대로 단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생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는 계속 악화가 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더 생산 수단이 발달하고 자본의 수요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서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 독점되고 나머지는 임금 노동자로 전락되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밖에는 못받고 나머지 혜택은 전부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귀속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순이 극대화되면 불가피하게 사회 혁명이 일어나서 계급 없는 사회, 즉 이미 생산력이라는 것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몫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몫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지상낙원이 올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계몽주의 시대의 자신감에 덧붙여서 마르크스는 역사가 필연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자기 이론을 실증적인 경제 동태의 연구에 기초한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보고 자본주의 이후

의 단계가 소위 과학적인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형이상학 또는 유태교 특유의 천년왕국 사상을 변형한 형태로 공산주의의 실현에 결부한 것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호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역사를 보는 사회조직에 관한 여러가지 이론들이 한 면만을 강조했습니다. 가령 분배를 중요시하고 정치 투쟁에 초점을 둔 것은 생산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가령 농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경우 인민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러시아에는 전통적으로 농민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 조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서와 같이 개인주의를 뒷받침하던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이점이다. 그래서 전체 체제의 횡포만 제거할 것 같으면 농민공동체 속에 담겨있는 협동정신이 기초가 되어서 사회주의로 이양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화는 벨기에를 거쳐 독일, 미국, 러시아로 엄청난 기세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우는 후진이었던 것 뿐이지 산업화·자본화의 추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불가피한 추세이고 바람직한 추세이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역사의 주체가 되는 소위 부르조아가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정치적인 민주주의, 즉 모

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는 그런 정도의 것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데서 끝나고, 사회주의혁명을 거치건 그렇지 않건간에 불가피하게 사회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후발국이었던 러시아에서는 의지적인 요소가 강조됩니다. 불가피성, 즉 역사의 필연이라고 하면서도 혁명 의식을 가진 인간들이 자본주의의 피해라는데 대한 도덕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혁명가들은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역사의 대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 역사라는 것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즉 한 쪽은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에서 출발한 것이고 다른 쪽은 자본주의의 계속된 발전, 산업화의 가속화에 점진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부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서구의 역사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새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새로운 원칙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위 역사의 새 장을 연다는 계획 아래 혁명을 일으켰고 실제로 혁명 정권이 계획 경제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험하였습니다. 양쪽의 공통점은 같은 합리주의라는 뿌리에서 나왔지만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철학이나

과학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을 간단한 수학기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뉴턴의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발견되면서 뉴턴 물리학식의 도식에서 오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축소·분해될 수 없는 원소에도 무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로 대표되는 심층 심리학에 있어서 인간은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축적되었던 여러가지 심리적인 여과물들이 인간의 행태를 지배한다.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인지라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에 기초했던 역사관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각성이 생기면서 하이텍커는 이런상태로 지속된다면 인류는 자멸할 것이다. 즉 신에게만 위임된다고 생각했던 창조력까지 인간이 갖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결국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빠져 멸망의 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예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반추가 일어나고 역사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 자본주의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했던 상태로 전개되었습니다.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

다고 주장하면서 가정을 했던 것은, 20세기 초까지 러시아는 후진국이지만 자본주의의 선진국들에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레닌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컸던 것이고 결국은 인류가 자연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제는 지구를 벗어나서 달나라까지 가는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DNA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배합하는 것까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 조물주에게만 위임되었던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되고 이것을 스스로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연과 인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연의 파괴를 야기시켜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빌딩을 건축함으로써 기상변화와 자연 재해를 야기시켰으며 인구 폭증으로 자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본질적인 인간 관계가 변해 경쟁 사회가 되면서 역사의 진보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지 못해도 정신적인 풍요를 만끽하고 생활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30여년 전부터 이런 상태로 인류가 지속된다면 20세기가 끝나기 전

에 인류는 멸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핵 위험과 인구의 폭증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비판입니다.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상상하지 못하던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물질이 가져다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의 주장을 일단 접어둔다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인구의 배분과 자원의 배분이 그전보다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빈국의 인구 증가율은 높은 반면, 부국의 인구 증가율은 낮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 요소가 그만큼 더 높아진 것입니다. 르완다 사태나 유고 사태라든가 또는 지금 러시아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국지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이 10년 후에는 국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간의 갈등이 국경안에서 통제되고 해결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즉 국제적인 경제 구조는 국경을 초월한 지 오래이며, 기술의 성격 자체가 국가 단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안에서 우리 문제를 생각할 수도 없고 전세계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차원에서 보이는 세계에만 국한시켰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고 하는 시각에서만 경제의 의미를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자연을 同生시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앞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같은 식의 논리를 배제시키고 교육 내용의 획기적인 변화와 역사를 보는 눈 또한 인간이 상당히 겸손해지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무한하지만 어느 면에선 이성의 힘으로 조정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안을 생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질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기 때문에 실제 물질 생산이라든가 사회 조직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소홀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물질을 생산해 내는 쪽으로만 치우쳤으며 생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인문 교육이라든가 영혼의 문제를 관리하는 성직자를 배양하는 신학교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사나 목사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

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표면에 나타난 우리의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은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고 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고의 방향을 상당히 돌려서 생각해야 될 점은 이제 물질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더 넓게 보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 그리고 같은 것을 발명하더라도 생각의 방향을 돌리면서 가치 체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통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성수대교 사건, 흉악 범죄의 해결책은 정신 자세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소재를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 즉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합리주의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룩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반대 급부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